금주 법구

스스로 공부함을 상품(上品)이라면
시켜서 하는 이 중품이 되고
그래도 아니 하면 하품이리니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세.
-지원 법사-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3월 7일 수요일(주간) 제 309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생명나눔' 대학 동아리

지난해 서울 모 대학에서 생명나눔실천회가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을 때의 일이다. 생명나눔 관계자가 무리지어 가는 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한 학생은 "그게 뭐하는 건데요" 생소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한 학생은 "엄마에게 허락받아야 돼요"라면서 고개를 돌렸다.

지난달 생명나눔실천회에서 지난 7년간 벌였던 장기기증 캠페인의 등록자 현황이 집계됐었다. 이 통계를 보면 장기기증 서약자가 7년새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기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데에는 40대 주부들과 20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두 사례만 놓고 봐도 장기기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그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반면, 나머지는 아예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후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사실 요즘의 대학생들은 취업이다 뭐다 해서 자기 한 몸 추스리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학생들의 무관심이나 무지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대학생들마저 각박해져가는 이런 세태 속에서 지난달 말 동국대학교에서 장기기증 동아리가 창립됐다는 소식은 '가뭄 끝 단비' 와도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Life Share(생명나눔)'로 이름을 붙인 이 동아리는 10여명의 불자 학생들로 구성돼 학교로부터 정식 동아리로 인준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나눔회의 노력과 뜻있는 학생들의 발심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장기기증 동아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 동아리는 장기기증 서약은 물론 혈소판 헌혈, 자체 캠페인, 매월 정기봉사활동, 무의촌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생명나눔실천회는 동국대에 그치지 않고 한양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서울산업대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고루 참여하는 연합동아리 구성도 추진하고 있어 장기기증 동아리가 대학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학생들의 장기기증 동아리 창립은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는 물론 대학과 대학인이 자기 아닌 '남'을 위한 삶의 터전을 가꾸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생명을 나누는 일은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아무나 쉽게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회 전체가 이들 대학생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열린 불교' 지평 넓힌다

조계사 – 생명문화학교 불교환경교육원 – 생태강좌
통도사 – 박물관대학 좋은벗들 – 통일대화마당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다양한 열린 강좌를 통해 '앎과 실천'의 매개역할을 함은 물론 문화포교의 지평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법단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이 강연을 하고, 시민들은 불상 앞에서 강연에 귀를 기울인다. 주제도 환경, 정치 통일, 경제, 문화 등 폭넓게 걸쳐 있다. 강사 중에는 학자, 시민운동가, 작가 등 전문가는 물론 신부, 목사 등 이웃 종교 성직자들도 끼어 있다. '열린 사찰'이 사회교육의 도량으로, 문화포교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열린 강연회'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조계사는 15일 '불교사상으로 본 환경문제'를 시작으로 '상생 순환적 삶의 논리' '우리나라 생협운동' '사찰 육아운동' 등 12가지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생명문화학교를 연다. 또 이날부터 오전 오후에 걸쳐 선학강좌 및 문화강좌를 연다. 〈육조단경〉으로 문을 여는 전문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자의 〈도덕경〉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는 문화강좌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리며, 한 주제당 14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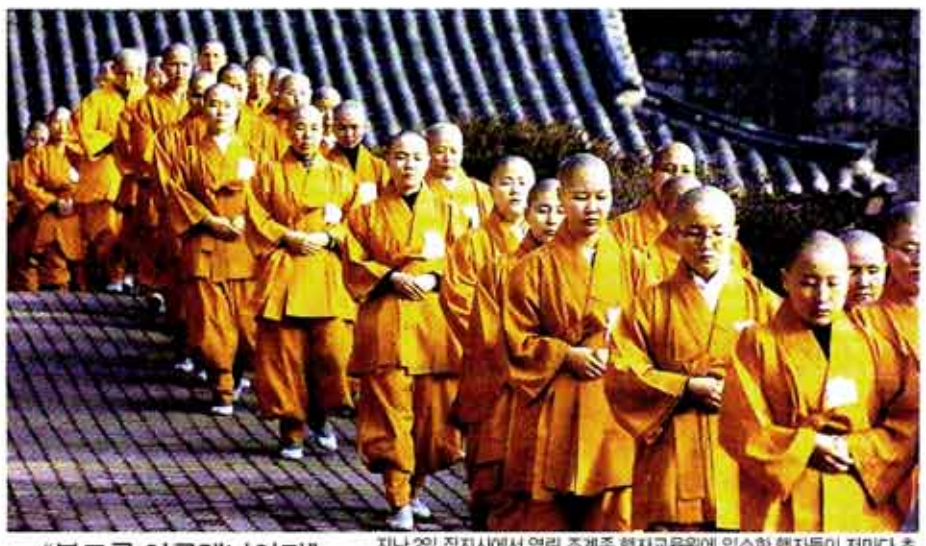
통도사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1시에 1년 과정의 박물관대학을 연다. 2년 과정의 연구과정도 개설. 불교공예, 불교건축, 불교미술, 불교조각 등을 집중 강의한다.

실상사에 자리잡고 있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사회문제를 불교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화엄광장을 두 달에 한 번 개최한다. '화엄광장'의 주제에는 삶과 수행, 지역공동체, 대안문화, 환경과 생명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망라된다.

매년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를 통해 불교생태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불교환경교육원은 5월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8개 도시에서 신도들을 주대상으로 한 생태강좌 및 환경실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좋은벗들의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은 2002년 11월 22일까지 총 12기 143회의 연속강좌를 매주 정토회관에서 진행중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과 미륭사도 개신교, 가톨릭, 유교 등 이웃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정기강좌를 열고 있어 불자 및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지난 2일 직지사에서 열린 조계종 행자교육원에 입소한 행자들이 지미다 초발심을 되새기며 불도를 이룰 것을 발원했다. 행자교육은 3주간 기초교리, 예불의례, 일보일배 등의 교육을 받고 사미 · 사미니계를 받게 된다. (김천=고영배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동백꽃에 묻힌 남도산사

백련사 · 대둔사 · 미황사

'지역 문화의 해'를 맞아 현대불교가 연중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지역불교 문화기행'이 첫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3월은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숲에 묻혀 있는 남도의 산사를 찾아갑니다.

◇대둔사의 서산대사 부도.

8명의 국사를 배출한 천태종 결사도량인 백련사에서는 만덕산과 강진만 바다가 빚어내는 환상의 정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대둔사에서는 조선후기의 명필 원교 이광사가 쓴 현판이 돋보이는 대웅전과 통일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20호) 등을 만나실 수 있고, 초의선사가 차문화를 일으킨 일지암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남도의 봄냄새가 가득한 미황사도 새봄을 맞는 불자 여러분들께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출발: 3월 24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중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생명평화연대 촉구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범불교연대 등 20여개 종교 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2일 새만금 간척사업 유보를 건의한 해양수산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새만금 간척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갯벌의 주무부서인 해양부가 해양생태계 보고인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유보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해양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에 따르면, 해양부는 총리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될 경우 갯벌이 사라지고, 회귀 조류의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대형 하구생태계가 소멸될 것"이라면서 "갯벌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

바미얀 대불 파괴명령 종단협, 즉각 철회 성명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바미얀대불 파괴 명령과 관련, 종단협의회는 2월 28일 성명을 내고 문화유적 파괴 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종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유산 파괴 정책은 종교를 떠나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인류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탈레반 정부는 바미얀 대불을 비롯한 불교와 힌두 문화유적 파괴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과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바미얀대불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파괴 명령의 철회를 위해 중국불교협회와 일본불교 대표기구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종단협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청와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보냈다.

민주당 연등회(회장 김기재)와 한나라당 불자회(회장 함종한)도 성명서를 내고 탈레반 정부의 고대 문화유적 파괴 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10면) 정성운 기자

장 - 군 - 죽 - 비

◇서울 지하철 5호선 4 5월 두 달 동안 봉축 열차 운행. '이 열차의 도착지는 극락입니다' (2면)

◇왜 대안학교인가? 아이들을 로보트처럼 길들이는 교육과 살벌한 경쟁만 남은 교실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8면)

◇사형제 폐지 운동 종교계가 나선다. 한국 사법부의 사전에는 없는 말, 용서! (9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코란의 이름'으로 불상 파괴, 어찌할 것인가? 종교라는 이름의 이 폐역무도를. (10면)

종단협 "연합감찰위 구성"

올 예산 8억여원 확정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27일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예산을 8억2727만원으로 확정하고 초파일 봉축 테마열차 운행, 남북불교통일토론회, 연합감찰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의원 59명 가운데 47명(위임 10명 포함)이 참석해 하림각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종단협은 △정기회비 인상 △회비 및 사업분담금 미납 종단에 대해 자진 탈퇴 종용 △연합감찰위원회 구성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 등의 임원 변경 등을 결의하고, 대각종의 가입을 추인했다. (봉축열차 2면, 회비 미납 기사 3면)

종단협은 또 정관을 개정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 허가 사항이었던 임원 변경 해산 조항을 보고 및 신고 사항으로 바꾸었다. 임원 취임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회비를 인상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종단협은 년 5280만원의 세입이 늘어난다. 회장 종단(조계종)은 월 350만원으로 현행대로이며, 부회장 종단(태고 천태 진각)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상임이사 종단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이사 종단(가입 종단)은 30만원 또는 40만원에서 4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20~50% 인상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一心佛院
각종 불상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since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지혜와 자비로 열려있는 문

한국불교진흥을 위한 五大主要事業 불교대백과사전편찬 · 교육 · 학술 · 출간 · 교화 진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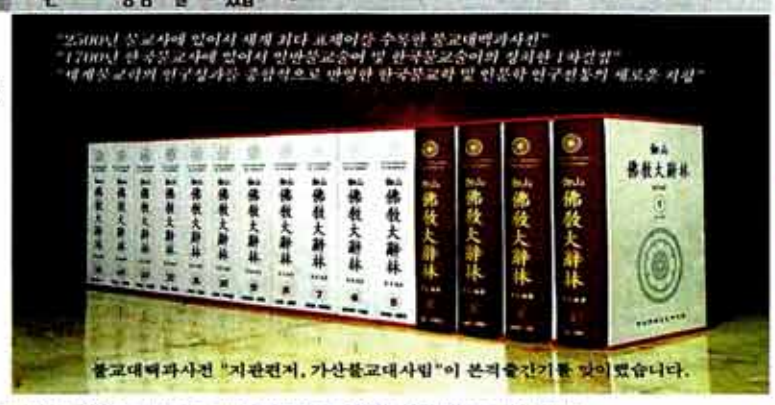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서울 · 종로 · 동숭192-10 ☎765-9602~3

●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院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 및 출판 · 교화사업부

● 취지와 목적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陀의 慧明과 傳燈의 修行 傳統을 정의정신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金堂.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 선전경독 「景德傳燈錄」
· 한국불교원경독 「白雲和尙語錄」 「眞覺國師語錄」
· 범어불교서연찬 「俱舍論」
● 불교어학연수과정
· 불교원문경독 「韓國佛敎全書」 「眞覺國師語錄」
· 범어연습 1 · 2 「티베트어연습 「고전티베트어」
● 기초학습과정
· 불교문화설의 이해
○ 상학원생 원서접수 일반강좌은 수시 접수 가능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대백과사전 불사동참을 권유합니다
● 현재 1 · 2 · 3권 출간, 4권 근간 제15권 년차 속간 예정
● 전권금액 2,8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750,000원(오백칠십만)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개월~60개월로 분할 입금하시면 됩니다.(1000분 한정 예약)

■ 가산학회편 『伽山學報』 창간호~제8호, 제9호 근간
■ 『한국승려총서』 출간 ·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신라편 /고려편1/고려편2/고려편3 /고려편4/ 조선편 · 『한국승려문총집』 (조선조 · 근현대)
■ 역대관 저 ·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 · 『伽倻山海印寺誌』 · 『信行日錄』 · 『要經序說』 · 『四集私記』 · 『曹溪宗史』
■ 세미나 및 학술대회 · 『韓國佛敎文化思想史』(상 · 하) · 『세계속 21동북의 고려대장경과 수행체계』 · 99년 2월의 인물 에드스님 조명 『세계정신을 리드한 위대한 한국인 에드』 · 『지관대사』 저술집